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

[몽 골]



[2013.7월]

서 대 문 구 의 회

《 목 차 》

I. 여 행 개 요	1
II. 세 부 일 정	2
III. 여행지 소개	3
IV. 방 문 지 역	4
1) 칭기즈칸 공향	
2) 몽골 국립 역사박물관	
3) 자이승 승전탑	
4) 하르호럼	
5) 에르덴주 사원	
6) 수호바토르 광장	
V. 연 수 후 기	7

몽골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지역현실에 적합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구상을 위해 해외 문화·관광 자원 활용 등 다양한 시책추진에 대한 폭넓은 견문을 통하여 의정활동과 선진 지방 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I

여 행 개 요

■ 여행 목적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외국의 주요 정책 운용 실태파악을 위해 몽골을 방문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배우고, 현장시찰을 통하여 견문과 지식을 향상시키고자 함

■ 여행기간 : 2013.7.6(토) ~ 7.12(금), 6박 7일

■ 여 행 국 : 몽골

- 주요 방문도시 : 울란바타르(몽골의 수도), 하라호름(13세기 몽골 최고의 역사도시), 아르항가이 아이막(주)의 주요 도시

■ 여 행 자 : 구의원 김순길(행정복지위원회 소속)

■ 여행경비 : 1,800천원

■ 주요일정

- 몽골 국립 역사박물관 방문
- 울란바타르시 대외협력국 방문 및 업무 협의
- 몽골 13세기 중심도시 하라호름 시찰 및 에르덴주 사원 방문
- 아르항가이 주 소도시 마을 커뮤니티 방문 및 유적지 답사

II

세 부 일 정

1일차			
■ 7.6(토)	11:20	인천 → 울란바타르	출국
	16:50	칭기즈칸 국제공항	도착 후 숙소 ▷ 오리엔테이션 및 휴식
2일차			
■ 7.7(일)		울란바타르	몽골 국립 역사박물관 관람
3일차			
■ 7.8(월)		울란바타르	울란바타르 대외협력국 방문 및 업무협의
		하라호름	‘하라호름 시청사’ 현장답사 ▷ 13세기 몽골제국 최초의 수도 몽골 최고의 에르덴주 사원 관람
4일차			
■ 7.9(화)		어기호수	하르발가스 유적답사 ▷ 8~9세기 위구르인 최초의 도성 하르 보힌 발가스 답사 ▷ 거란족 유적지
5일차			
■ 7.10(수)		울란바타르	울란바타르로 복귀 및 휴식
6일차			
■ 7.11(목)		울란바타르	자이승 전망대 관람, 이태준열사 기념공원 방문
7일차			
■ 7.12(금)	08:45	울란바타르 → 인천	칭기즈칸 공항 이륙
	12:50	인천	귀국

III

여행지 소개

국가 : 몽 골

- 위치 :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 면적 : 1,504,500km²
- 인구 : 270만명
- 수도 : 울란바타르(Ulaanbataar)
- 언어 : 몽골어
- 종교 : 라마불교 90%, 이슬람교 5%
- 정부체제 : 민주주의(대통령제, 의회제)
- 통화 : 투그룩(Tugrug)
- 13세기 초 칭기즈칸이 등장해 역사 상 최대의 몽골 대제국을 건설했으며, 동서 여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몽골제국이 멸망하고 남은 내륙 중앙부가 1688년 청(淸)에 복속되어 '외몽골'로 불렸다. 1911년 제1차 혁명을 일으켜 자치를 인정받았으나 1920년 철폐되었고 러시아의 10월 혁명에 영향을 받아 1921년 제 2차 혁명을 일으켜 독립하였다.



도시 : 울란바타르

- 위치 : 오르혼강의 지류인 토라강 우안
- 면적 : 4704.4km²
- 기후 : 연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
- 18세기 러시아·청 양국의 중계무역지로 번창, 1911년 외몽골의 독립과 함께 수도가 되었다. 1924년 울란바타르로 개칭하고 몽골의 정치·경제·문화면에서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으며, 공업화 이후 더욱 발전하였다. 문화시설로는 몽골 유일의 종합 대학인 울란바토르 대학과 농업·의학 등의 전문학교, 사범학교 등이 있다.



IV

방문지역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공항에 도착하다

■ 인천공항에서 출발한지 3시간 여 만에 몽골 울란바타르 칭기즈칸공항에 도착했다
원래는 울란바타르 공항이었는데 몽골제국 800주년을 기념하여 칭기즈칸 공항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한다. 칭기즈칸을 앞세워 그들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였다. 공항의 규모는 국제공항치고는 조금 작은 편이다. 최근 몇 년 새 한국관광객들이 많이 늘어 대한항공 정기편이 마련되어 있다.



몽골 국립 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Mongolian History]

■ 몽골 국립 역사박물관(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Музей)에는 역사, 음악, 종교에 관한 자료와 문화재 등이 전시되어 있어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몽골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몽골 유목민들의 복장과 물건들 외에 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시물이 상당수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박물관은 인류 거주 시기인 75만 년 전부터 현대까지 몽골 지역에서 출토된 5만여 점 이상의 역사 유물을 기초로 고대국가, 몽골제국, 몽골 전통문화 및 생활상, 전통 의복 및 복식 등 몽골의 고대에서 근현대까지의 발전 과정을 전시하고 있다. 1924년 자연박물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71년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였다. 1992년 자연박물관의 개편으로 자연사박물관과 국립역사박물관으로 각각 분리 독립하였다. 국립역사박물관은 2008년 12월 국립박물관으로 개칭하였다. 정부 청사 서쪽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자이승 승전탑 [Zaisan Memorial]

■ 자이승 승전탑(Зайсан)은 몽골의 제2차 세계 대전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1971년에 세워졌다. 자이승 승전기념탑은 울란바타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울란바타르 시내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도 하고 있다.



하르호름

■ 비록 작은 도시일지 몰라도 한때 몽골제국의 수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유서 깊고 역사적인 곳인가 싶은데 정작 그 흔적은 뚜렷하지 않아 역사의 영고성쇠가 다 무상하게 느껴진다.

■ 잠깐 들렀다 갔으면 싶어 마을 한가운데 시장 광장으로 가 세운다. 마을 시장인 듯한데,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남다를 것 없겠지. 특히 우리네 장날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에르덴주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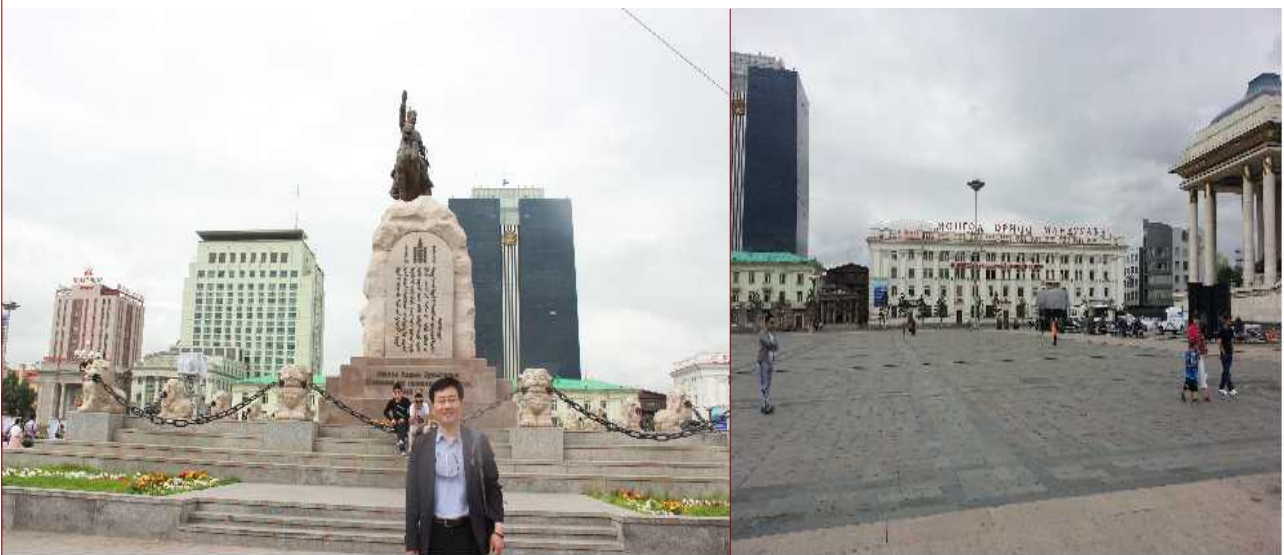
■ 오고타이 칸이 거주했던 궁전으로 실제로는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이 아니고 거대한 게르 형태였다고 하는데 현재의 모습은 몽골 최초의 라마 불교사원이다. 옛 몽골제국의 왕궁 터에 왕궁의 부재를 가지고 지어졌다는 점에서 몽골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곳이다.

■ 이러한 사원도 청의 침략으로 완전히 버려졌다가 1760년부터 조금씩 재건되기 시작했다. 백팔번뇌를 상징한다는 108개의 탑과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400m×400m) 사방에 네 개의 문을 만들었다. 1808년 만치르가 다시 재건을 시도했으나 스탈린 때 전각 일부만 남기고 모두 파괴되면서 일부 유적이 산에 묻히거나 주민들의 집에 숨겨져 보존되었으며 1965년까지 폐쇄되어 있다가 이후 박물관으로 다시 개장하였다. 1990년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며 점차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

수호바토르 광장

■ 몽골 혁명의 아버지 스흐바토르가 몽골인민정부를 수립한 것을 기념해 몽골정부가 그의 동상을 세우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울란바타르 중심에 있는 역사적인 광장이다

■ 울란바타르 시내를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으며 시내중심부에 있어 울란바타르의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광장을 중심으로 정부종합청사, 독립 영웅들의 묘지, 역사박물관, 중앙우체국, 외무부청사, 국립오페라하우스, 몽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몽골의 정치·경제·문화의 1번지라 불리는 곳이다.



■ 몽골의 자연. 정치. 경제의 현상을 둘러보고



몽골은 자연친화적인 국가이다. 거대한 자연의 캔버스 위의 최소한의 사람의 손길로만 드로잉된 하나의 예술작품 같이 광활하고 눈이 시리게 맑아서 자연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자연위에서 게르라는 몽골 유목민족의 전통적인 집에서의 체험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자연과 친화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방식이 별과 하늘의 지평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몽골은 우리 한반도 전체 면적의 7배가 되는 넓은 면적의 나라이지만 인구는 280만 명이니 아직은 인간의 손때가 덜 묻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음이 당연할 거란 생각이 든다.

몽골의 과학, 몽골의 산업, 정치 경제현상보다 더 값진, 오염되지 않은 자연은 몽골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원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환경과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몽골의 정치를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의 차히야 엘벡도르지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50.23%의 득표율을 받음으로 정치는 안정적 구도로 들어섰으며 특히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 공공관리학 석사 출신의 엘리트로 경제의 선두 주자로 국가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한국에도 우호적이어서 울란바타르 시내 중심가에 서울의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서울 중구와도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



서대문구도 몽골과의 교류 추진을 통해 ,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몽골과 교류도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고용창출과 선진행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몽골의 경제는 2010년 말 몽골의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59억 8,000만 달러이고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2,200달러, 경제성장률은 6.1%이다. 무역액은 61억 7,000만 달러인데 이 가운데 수출이 28억 9000만 달러, 수입은 32억 8000만 달러이다. 주요 무역 품목을 살펴보면 석탄·동 등의 광물(82%)과 캐시미어(6%)를 주로 수출하고, 석유제품(21%), 중장비 및 부품 (17%), 자동차(13%), 식품(5%) 등을 주로 수입한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순이다.

몽골은 광물자원이 풍부해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손꼽힌다. 주요 자원으로는 석탄 (1,750억 톤, 세계 4위), 동(5,500만 톤, 세계 2위), 형석(1,400만 톤, 세계 3위), 우라늄 (6만 톤, 세계 14위), 몰리브덴(21톤, 세계 7위), 인(24억 톤, 세계 3위), 텅스텐(7만 톤, 세계 5위), 금, 철, 아연, 석유 등이 있다.



몽골을 둘러본 전체 느낌은 우리나라의 70년대 정도 모습 같았다. 특히 빈부의 격차가 크며, 수도인 울란바타르의 인구가 60% 이상 집중됨으로써 수도를 중심으로 주택이 달동네, 판잣집 형태로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적으로 주택개선이 시급해보이며, 도시도 계획 적으로 건설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의 대학 연구기관, 시청 등이 몽골 정부의 자문을 해주며 한국의 건설 기업들이 주택 부문에서 건설을 하고 있어서 몽골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몽골의 자연, 정치, 경제, 현상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살펴보면서, 자연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친 한국적인 몽골의 경제발전의 교류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특히 서대문구의 의원으로서 몽골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보고, 관내 연세대 병원과의 의료서비스연계를 이룬다면 좋겠단 생각이 든다. 또한, 행정 서비스가 뛰어나며, 관내에 명문대학과 형무소역사관, 독립문 등 문화자원이 많은 서대문구와의 연계를 통해, 서대문구와 몽골의 발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공무여행 기간이었다.